

KOREA MARITIME INSTITUTE

바다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□ 앙골라 정부, 로비토(Lobito)항 현대화 및 확장에 12억 달러 투자 예정	2
□ 엘살바도르 라우니온(La Unión)항, 2012년 11월까지 운영권 입찰 완료 예정	3
□ 폴란드 그드니아(Gdynia)항의 발틱컨테이너터미널(BCT) 확장예정	4
□ 우크라이나, 유즈니예(Yuzhnyi)항에 LNG 터미널 건설계획 발표	5

□ 앙골라 정부, 로비토(Lobito)항 현대화 및 확장에 12억 달러 투자 예정

- 앙골라 정부가 로비토항(port of lobito) 현대화 및 확장에 약 1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, 로비토 항만회사(Port Company)의 Anapaz de Jesus Neto 회장이 밝혔음
 - 여기에는 로비토항 인근에 위치한 광산개발의 완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광물자원의 수출입을 위한 신규 터미널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, 컨테이너화 추세에 따라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 - 로비토항의 현재 시설은 8선석 규모이나, 향후 12선석으로 확장하고 연간 처리능력을 1,100만 톤으로 증대시킬 예정임
 - 로비토항은 2011년에 컨테이너 8만 8,000TEU를 포함하여 총 270만 톤을 처리하였음
- 로비토항은 앙골라, DR 콩고 및 잠비아가 합의한 Lobito Development Corridor의 기종점이며, 3국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 시설의 현대화와 교통 법률, 정책, 규정 및 표준 등을 간소화하고 조화롭게 운영하여 무역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
- 한편, 앙골라의 최대항으로 로비토항 북쪽에 위치한 루완다항(port of luanda) 또한 약 200m² 규모의 확장계획이 진행 중에 있음

< 앙골라 주요항만 위치 및 주요 corridor >



< 로비토항 현황 >

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 2012.3.28; www.trademarksa.org

송주미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71, jmsong@kmi.re.kr)

□ 엘살바도르 라우니온(La Unión)항, 2012년 11월까지 운영권 입찰 완료 예정

- 엘살바도르 국영 항만위원회인 CEPA(Comisión Ejecutiva Portuaria Autónoma)에 따르면 라우니온항에 대한 항만 운영권 입찰을 2012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
 - 라우니온항은 일본 및 벨기에 컨소시엄인 Toa Corporation-Jan De Nul이 1억 9,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하였으며, 2008년에 완공되어 2010년부터 CEPA가 운영을 시작
 - CEPA측에 따르면 올해 8월 중에 입찰 관련 규정을 배포할 예정이며, 11월에 입찰을 마감한 후 12월 중에 항만 운영권을 부여하고 2013년 1월 중에 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
 - 한편, CEPA측 운영권 입찰 담당자는 2013년 1월에 운영권 계약이 체결 되는대로 운영사가 바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

- CEPA는 라우니온항을 국제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항만운영회사와 항만 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
 - 소식에 따르면 현재 DP World, APMT, Ports of America 및 SAAM 등이 라우니온항 운영권에 관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남

- 엘살바도르는 파나마운하에 가까이 위치하여 북미와 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입지강화를 모색하는 항만운영회사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지역임
 - 2014년 파나마운하 확장사업이 완공되면 해당 지역의 물동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이는 라우니온항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

- 그러나 라우니온항 운영권 입찰에 관심을 보인 일부 사업자들은 CEPA측이 라우니온항 뿐만 아니라 아카후틀라(Acajutala)항까지 하나로 묶어 통합 운영권을 양도하기를 희망하고 있음
 - 특히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입지강화를 자사의 전략으로 분명하게 내세운 APMT가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함
 - APMT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 담당인 Henrik Perderson는 엘살바도르 자체가 큰 국가가 아니며, 엘살바도르가 보유한 라우니온항 및 아카후틀라항 또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이 두 항만을 한 운영회사가 운영해야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
 - 반면, 엘살바도르 현행법 하에 현재로서는 두 항만에 대한 운영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양도할 수 없는 상황임

참고 : 국제물류위클리 81호, 120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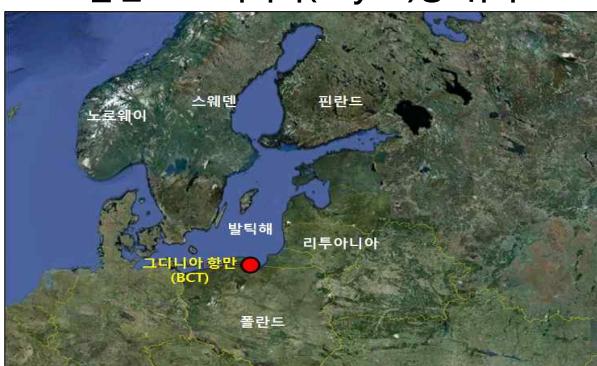
자료 : www.businessmonitor.com, 2012.4.3.

김홍매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28, hisgrace@kmi.re.kr)

□ 폴란드 그디니아(Gdynia)항의 발틱컨테이너터미널(BCT) 확장 예정

- 197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폴란드 그디니아항(Gdynia Port)의 발틱컨테이너터미널(Baltic Container Terminal, BCT)은 발틱지역 최대 터미널 중 하나이며, 폴란드내의 선도 컨테이너 터미널임
 - 발틱해 그단스크만(Gdańsk Bay)의 서부해안에 위치한 그디니아항은 1926년에 건설되었으며, 2008년에는 발틱해에서 2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부상함
 - BCT는 필리핀 ICTSI(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, Inc.)¹⁾사의 자회사임
- 총 4,92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BCT 확장사업은 2015년에 완공 예정이며, 유럽연합 수송프로젝트센터(Center of European Transport Project)가 그중 1,7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
 - BCT는 인프라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조치 7.4(Infrastructure & Environment Operational Program Measure 7.4)인 '복합수송체계 개발(Development of Intermodal Transport)'의 일부로서 보조금을 획득함
- BCT 확장계획에는 안벽 크레인, 타이어식 갠트리 크레인(RTGC), 레일식 갠트리 크레인(RMGC)²⁾ 등을 포함한 신규 항만하역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야드 개발 및 IT 시스템 도입도 포함됨
 - BCT 확장 프로그램에는 터미널 야드와 도로의 현대화, 냉동 컨테이너 랙의 추가적인 설치뿐만 아니라 장비 및 자동게이트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(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, DGPS) 설치도 포함하고 있음
- 이번 투자로 인해 BCT의 연간 터미널 처리 능력은 현재의 75만 TEU에서 120만 TEU로 6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< 폴란드 그디니아(Gdynia)항 위치 >



< 발틱컨테이너터미널(BCT) >



자료 : Port Technology International, 2012.3.30; World Maritime News, 2012.4.2.

이언경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919, eklee@kmi.re.kr)

1) ICTSI는 전세계적으로 17개 국가에서 22개 터미널 및 항만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선도 항만운영사임

2) RTGC(Rubber Tired Gantry Crane), RMGC(Rail Mounted Gantry Crane)

□ 우크라이나, 유즈니예(Yuzhnyi)항에 LNG 터미널 건설계획 발표

- 우크라이나 국가 프로젝트 위원회 담당자 Vladyslav Kaskiv는 유즈니예항 LNG터미널 건설계획을 발표
 -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스수입의 다변화 차원에서 아제르바이잔, 카타르, 알제리 등으로부터 가스를 수입하여 저렴하게 국내에 공급하고 또 인근 국가에도 수출하기 위해 LNG 터미널 건설을 추진 중임
 - LNG 터미널 건설비용은 약 13억 달러로 예상되며 비용의 70% 규모인 6억 8천만 달러는 채권발행이나 대출을 통해서 조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7,3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
 - 투자자는 2개월 이내에 선정될 예정이며, 선정 후 건설계획을 진행할 예정
 - 유즈니예항은 오데사(Odesa) 지역에 있으며 유류 처리 터미널도 가지고 있음
 - 유즈니예항의 2011년(1-12월) 화물 처리량은 전년대비 25% 증가한 2,052만 톤임
 -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VAT를 2014년까지 17%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결정

< 우크라이나 유즈니예(Yuzhnyi)항 >



< 유즈니예(Yuzhnyi)항 조감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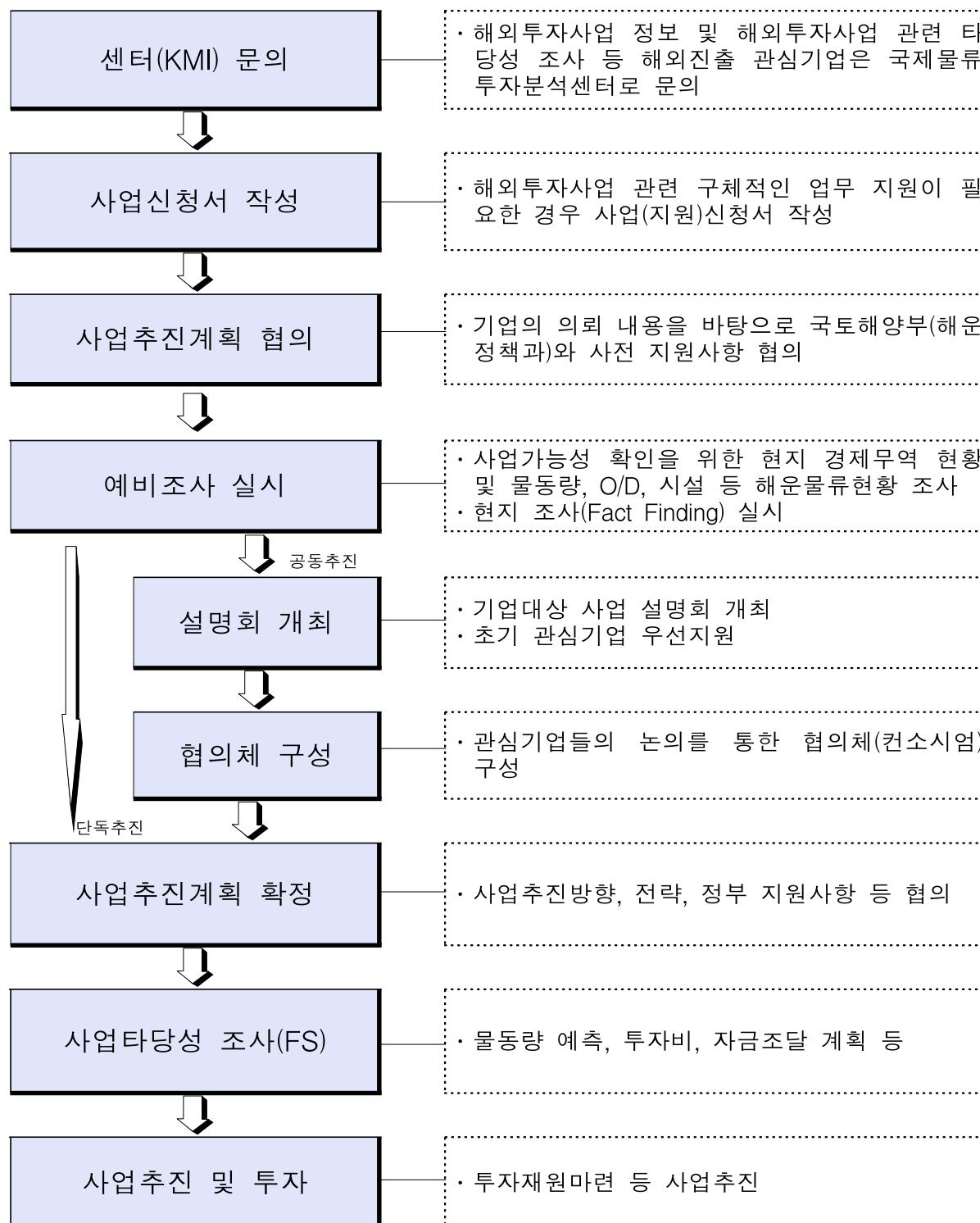


- 터미널 건설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 할 예정이며 첫단계는 2016년까지 2억2,700만 톤(50억m³)의 처리능력을 갖춘 후 다음 단계로 2018년까지 두 배인 4억 5,400만 톤(100억m³) 처리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할 계획
 - 총 건설기간은 약 4년을 예상하고 있으며 추가로 터미널에서 소비지역으로 연결되는 LNG 파이프라인 건설도 계획하고 있음
 - 파이프라인 건설 예상비용은 약 15억 달러임

자료 : www.hellenicshippingnews.com, 2012. 3. 30

전혜경 연구원(☎ 02-2105-2982, saeii@kmi.re.kr)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